

천태산에 아미타불 나투시니...

천태사 마애아미타불 점안대법회 봉행

양산 3대 명산 중 하나인 천태산의 깎아지른 절벽에 16m 규모의 대형 마애아미타부처님이 나투셨다.

천태사(주지 진우는 지난 5년간에 걸쳐 마애아미타불과 좌우협시보살상을 조성하고, 6월 28일 오전 10시 점안대법회와 만등불사,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이 아미타불본존상은 좌우협시보살과 함께 16m에 이르는 대형 마애불로, 2004년 조성원력을 세운 뒤 5년 여 기도정진으로 불자들의 신심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점안법회와 함께 불사를 회향하게 됐다.

양산 8경 중 하나인 천태산에 자리 잡은 천태사는 신라 원효 대사가 창건하고, 이후 많은 고승대덕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1부 점안식에 이어 2부 법요식은 육법공양, 고불문 낭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주지 진우 스님의 인사말,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의장)의 법어, 격려사 및 축사, 발원

문 낭독 등의 순으로 2시간 여 진행됐다. 이어 3부에는 마당놀이 배우 김종엽씨가 사회와 공연을 맡아 산사음악회를 열고, 사부대중과 출연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원만회향을 축하했다.

주지 진우 스님은 "이곳 천태산에 온지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가람을 중수하고 도량을 가꾼 것은 산승이라면 의무 해야 할 도리요 책임일 것"이라며 "앞으로 천태사 도량이 고승이 소멸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정토도량으로서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을 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 보선 스님,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및 지역 정재계인사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했다.

한편 천태사는 마애아미타불 점안법회의 회향과 동시에 천일기도에 들어가 만등불사를 입재했다. (055)382-5515 박지원 기자



양산 천태산 절벽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높이 16m의 마애아미타부처님.

광진 스님 취임

해운대구불교연합회

부산시 해운대구불교연합회장으로 동해사 주지 광진 스님이 취임했다.

6월 29일 오후 4시 해운대 글로리콘도에서 열린 이번 취임식은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수석부회장 화산 스님,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 및 배덕광 해운대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광진 스님은 취임사에서 "항상 육바라밀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화해증생의 대승적 이념을 실천하며, 해운대구와 부산 불교의 발전과 포교에 전념해 상내지 않고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여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수도 부산 중에서도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해운대구의 불교인 회장만큼 불교문화의 발전과 포교에 힘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복 짓는 화두·염불 등 수행하라"

홍법사 큰스님 초청법회 9월 3일까지

홍법사(주지 심산)는 7월 1일 오전 11시 '2009 홍법사 대웅보전 낙성기념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수행, 삶의 향기 찾기'를 주제로 한 이번 법회는 대웅보전의 낙성을 기념하고, 윤5월 생전예수재 및 백중을 맞아 특별히 마련됐다.

7월 1일부터 총 10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대덕스님 10명의 법문을 차례로 듣는 릴레이 법회의 입재법문으로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법석에 올랐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불공을 올리고, 11시 초청 법문 후 12시에는 '생전예수재 및 우란분절 영가전도' 시식을 봉행했다.

성우 스님은 "〈아함경〉에는 이 세상 모든 힘 중에서 복의 힘이 으뜸이며, 그 복의 힘으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뤘고, 모든 중생들도 복의 힘으로 성불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며 "한 사람이 맑고 복된 생각을 일으키면 곧 복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복

받을 마음을 일으키는 화두, 염불, 다라니, 사경 등을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놓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사랑으로 태어나 불법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복 짓기의 공덕에 대해



7월 1일 홍법사 대웅보전 낙성기념 큰스님 초청법회에서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이 입재법문하고 있다.

법문했다.

향후 법회 일정으로는 7월 8일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15일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22일 영축총림 전계사 해남 스님, 29일 서울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 8월 5일 부산 효산선원장 효산 스님, 12일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19일 석종사 금봉선원장 해국 스님, 26일 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9월 3일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련 스님 등이 차례로 법석에 오른다. 박지원 기자

신도 집단·조직화해 실천운동해야 '상승효과'

불퇴전의 신심으로 부산 재가불교의 중흥을 이끌 야단법석, 한국 불교를 선도한 천년 신라의 고도 경주에서 열렸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이하 연합신도회)는 6월 27일 오후 6시부터 1박2일간 코모도호텔 경주조선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역할과 책임'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하만경 감사(부경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만 교수(동국대 불교학과)가 그 발전적인 모색과 기초자료에 대해 기초발제했다.

하 감사는 "신도조직은 신심 형성과 유지가 필수적이다. 종교적 신심은 개인적이지만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행도반이 필수요소"라며 "신도의 활동을 집단화·조직화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와 만남을 위한 실천운동을 벌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역할과 책임' 세미나



6월 27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첫 세미나를 가진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원 및 참석인사들이 집단 출발을 다짐했다.

이자"고 말했다.

이어 주제토론은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의 '여성 불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불교발전', 류상영 대각불교대학 교학처장의 '부산불교연합신도회의 역할과 책임', 정순희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

회 사무총장의 '불교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또, 재정분과 김경선 위원장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재가불교', 교육연구분과 임장근 위원장의 '불교교육과 문화적인 시스템 마련

이 우선돼야', 교관수호 및 언론대책분과 김상현 위원장의 '교관수호 및 언론대책분과위원의 책임과 역할', 민족화합분과 권승렬 위원장의 '불교의 전래와 호국불교' 등 다양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설동근 회장(부산시 교육감)은 "오늘날은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화합을 위해 불교를 바탕으로 한 애국애민이 절실한 때"라며 "11월 창립한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호국호법의 기치를 높이고자 마련한 세미나가 유종의 대미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부산 재가불교 교육과 포교, 수행에 이르는 불자의 자질향상과 수직 증대를 위한 심도 깊은 토론회로 부산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견인하는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지원 기자

'정진 30년' 출판

부산불교정진회

부산불교정진회(회장 최병된)의 지난 30년간 발자취가 책으로 나왔다.

부산불교정진회는 6월 25일 오후 6시30분 라메르뷔페에서 <정진 30년>의 출판기념법회를 열었다.

이 책에는 그간 순례한 사찰 총 54곳과 80여 회의 야외법회 코스와 일정, 두 차례 중국 불교 성지순례 및 사진으로 보는 정진 30년, 회칙, 회원 및 인원 변동사항, 회원 주소록 등 30년간 정진단체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최병된 회장은 발간사에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마음을 내어 부처님 도량인 산사를 찾아 간다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정진 수행이었다"며 "깊은 불심과 환희심의 30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준 모든 회원들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자연' '리더십' 등 5색 캠프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초·중·고생 방학 프로그램

영도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켜 줄 5가지 주제의 특별한 여름방학 캠프를 찾아온다.

(재)내원청소년단 함지골청소년수련관(이장 정련)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2009 여름방학 캠프를 개최한다.

7월 27-29일 함지골수련관과 내원정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 '풍진 수행이었다'며 "깊은 불심과 환희심의 30년을 한결같이 함께 해준 모든 회원들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8월 8-9일에는 하늘사랑 캠프, 8월 10-11일 자연창작공예캠프에는 모두 초등학교 3-6학년이 참여할

수 있다. 이어 12-14일 리더십캠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초등학교 4-6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17-19일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가 함지골수련관과 홀스테이 가정에서 함께 진행되며, 초등학교 5-6학년 중 홀스테이가 가능한 가족이면 참가할 수 있다.

신청은 8월 3일까지 등록순 마감이며, 단 템플스테이는 7월 24일에 마감하니 서두를 것. 접수는 수련관 2층 사무실에서 이뤄지며 전화 및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051)405-5223 박지원 기자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지등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풍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전등

종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영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